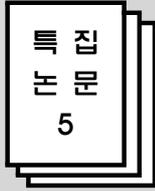


통합연구 제 19권 2호 (통권 47호)

## 미술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 말씀(Logos)의 체현(體現)으로서 오의석의 조각 이미지 연구

Research on the Sculptured Images of Isaac Oh as Embodiments of the Logos

이은주 (캐나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

I. 들어가는 말

II. 작가의 삶, 신앙과 작업

III. 작품세계

1. 고철의 용접, 정크조각(junk sculpture)

2. 테라코타(terra-cotta), '흙 사람 · 불'

3. 오브제에 사진 플라주 연작

4. 야외조각과 스케치, '연변의 흙과 바람 속에서'

5. 환경조각 '울림'연작과 '새 순'

IV. 맺음말

Research on the Sculptured Images of Isaac Oh as Embodiments  
of Logos

by Eun - Ju Lee  
( VIEW/ Trinity Western University)

This paper is the result of research on how the sculptured images of Isaac Oh embody Logos. Oh, who is a Korean Christian modern sculptor, has reflected his identity strongly to the world through his sculptures. When he expresses his thoughts about Jesus, the suffering of living under harsh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in spiritual darkness, or the life of sharing with neighbours, in his sculptures, there is a spirit that reflects Logos. Moreover, he has expanded the world of Christian modern art through the use of a variety of art styles and materials to express Logos through his sculptures.

Over the years, Oh's work has evolved through five periods. During the first period, he made objects through welding scrap iron and new iron together, to declare Logos, evidence of Logos, and a resistance to the beliefs of his contemporaries and the current environment. In the second period, he demonstrated Logos through terra-cotta sculptures. He showed the concept of human beings in the Bible through an analogy between material and theme of terra-cotta. Throughout the third period, he expressed the agony of contemporary life through collages of photos on objects, and he suggested an alternative plan to selfishness through photos that demonstrate loving and sharing with one another, which is the practice of Logos. In the fourth period, he led a project of a sculptural park in Yen Ben, China, to express people interacting with nature through sketches and sculptures in a field. Oh's fifth and current period begins after Yen Ben. At this time, he is interested in sharing his world of sculptures with the general public through environmental sculptures, such as sculptures in fields, beside roads, and in inhabited areas.

Through researching Oh and his sculptures, it can be seen how the world of his sculptures has changed over time as his faith in God and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has grown. When he was young, he placed art first. After his conversion to Christianity, the world of his sculptures changed from expressing art, to expressing Logos, to serving people through the embodiment of Logos in his art. Nowadays, his world grows to include other people more and more. Logos gives him freedom to express variety and abundant thoughts. Through the world of his sculpture, people can find an abundance of symbols, which embody Logos. Moreover, people can expect Logos to work through Oh to make another world of sculptured images in the future.

**Key words:** Logos, Christian Worldview, Embodiment, Junk,  
Terra-cotta, Objet, Collge, Environmental Sculpture

## I. 들어가는 말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작품의 작가를 개인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있으면 작품 이해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작가의 삶과 신앙이 그의 작품 세계에 바르게 투영되고 그 작가가 추구하는 바가 인류 구원과 평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큰 기쁨이 된다. 조각가 오의석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며 이 기쁨 때문에 그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각가 오의석 교수의 작품을 기독교 세계관과 말씀의 체현이란 관점에서 시대별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각 시대에 발표된 그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의 조형 세계를 탐구해보려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가 말씀과 형상 사이에서 겪은 갈등과 화해와 통합이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몸부림쳤던 흔적들이 어떻게 작품에 녹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 II. 작가의 삶, 신앙과 작업

조각가 오의석은 1956년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오세형의 삼남으로 태어나 성장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재직하는 시골의 초등학교를 떠나 읍내의 공주고대부국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찰흙공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장차 조각가 오의석이 되게 한 좋은 토양이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sup>1)</sup> 이어 그는 공주사대부설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미술부 활동을 계속하였고 삶의 궁극적 진리를 찾기 위해 교회 주일학교와 절을 찾아다니는 종교적 순례를 시작한다. 한 때 철학과의 진학을 꿈꾸기도 하였으나 1974년 서울대 미대 조소과에, 1978년 동(同)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다. 대학 캠퍼스 시절, 예술지상주의자로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던 그는 대학 3학년 때 대학생 기숙학사인 승덕학사에서 복음을 듣고 동(同) 캠퍼스 한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게 된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가 찾은 해답은 그 후로 그의 작품 속의

1) 오의석,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서울: 홍성사, 2006): 13.

주제로 등장하며 관객과의 만남과 소통을 시작하게 된다.

그의 첫 개인전은 1986년 서울 인사동의 제3미술관에서 열렸다. 오의석은 이후 2006년까지 열 번의 국내외 개인전을 가지며 중견 조각가로 성장한다. 그는 대학시절 예수로의 회심 이후 복음전도와 제자양육을 강조하는 캠퍼스 선교 단체에서 신앙을 훈련을 받았는데, 이 때의 영향으로 그는 한 때 그의 전공인 미술과 문화에 대해 회의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도 하였으나<sup>2)</sup> 군복무를 마치고 은사인 김세중 교수의 아틀리에에서 조수로 일하며 석사학위 논문을 쓰던 시절에 만난 프란시스 웨퍼와 라브리의 책들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는 IVF 예술조모임, 기독교학문연구회, 그리고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시 전공과 작품 활동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또한 그는 미국의 Calvin College 미술학과(1993-94)에서 연구교수로 지내며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다양한 조형 작업을 체험한다. 이 때, 그는 펜실베이니아 그랜턴의 메사이어대학 초대 조각가 2인전과 인디애나 화이트웨인에 있는 프리스비테리안 갤러리에서 개인전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하게 감상자들을 만날 기회를 갖는다. 1994년 귀국을 앞두고 그는 미국에서 ‘복음과 민족’이라는 주제로 열린 KOSTA에 참석하여, 세계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열정은 귀국 후 그의 비전트립과 해외답사로 이어졌으며 1997년 해외 봉사단의 지도교수로 젊은 대학생들과 한 달 간 머문 방글라데시의 체험 이후, 그의 작품세계는 또 한 번의 전기를 맞게 된다. 1999년 뉴질랜드에 대한 환상으로 온 세계가 들떠 있을 때, 그는 ‘20 세기의 얼룩진 지구를 회상함’이란 주제로 지구촌의 어두운 현실을 상기 시키며 오브제를 활용한 사진 플라주전을 열게 된다. 수 차례의 개인전 이후 그는 자신의 작품 주제와 삶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며,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으로 탈진 현상에 이른다. 그는 안식년을 맞아 연변과기대 건축학부(2001)에서 연구교수로 지내며 조각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대형 조각 작품 여러 점을 연변 공원에 세우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충전과 미의식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전기가 된다.

그는 군산대, 서원대, 신라대, 전북대, 충남대 등에서 조각을 가르쳤고 1989년부터 대구가톨릭대 미대 조소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IVF 지도교수로 섬겼으며 미술대학장과 디자인 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1990년대 후반

2) 전광석 외, 믿음과 배움으로 도전하는 삶(CUP,1997). 오의석의 글 ‘신앙과 미술의 길’은 1996년 여름 기독교미술단체 연합캠프에서 후배들에게 나눈 글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그의 청년기에 신앙과 미술 사이에서 겪은 혼돈과 갈등이 잘 나타나 있다.

경북신학교에서 <예술과 사상>을 강의했으며, 2001년 이후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의 객원교수로 미술과 세계관 관련 강의를 담당해 오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기독교와 미술’(공저, 예영 1996), 작품집 ‘LOGOS& IMAGE/말씀과 형상’(진홍아트홀, 2003) 등이 있으며 이밖에 그는 신앙과 전공에 관한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98년부터 홍성사 ‘꿈’ 회보에 연재한 미술칼럼이 2006년 ‘예수 안에서 본 미술’이란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조각가 오의석은 여러 미술단체에서 활동하였는데, 한국미술협회, 경북조각회, 서울조각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한국미술인선교회 대구기독교미술선교회 등에 참여하였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부교회에 출석하면서 미술교육을 전공한 아내 이종화와 상택, 원택, 은택 세 자녀와 함께 경북 경산에서 16년째 살고 있다.

### III. 작품세계

조각가 오의석의 삶과 신앙은 그의 작품 세계에 잘 용해되어 나타난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작품 세계에 철저하게 반영시키려고 모색하기에 진리가 단순하고 명료한 것처럼 그의 작품이 주는 메시지 또한 단순하고 분명하다.

이런 그의 삶과 작품을 보면, 그가 동(同)시대정신과 함께 고민, 고통하며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작품 세계에 담아내기에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의 작품은 늘 말씀의 인도함에 반응하며 말씀 앞에 열려 있었다. 그의 삶과 작업을 살펴보면 신앙의 성장과 함께 주거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작품의 재료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의 작품의 주제들이 보다 원숙해지는 변화를 드러낸다. 이런 이유로 그의 작품을 바라보면, 마치 작품이 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되는 듯한데,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좇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도전으로 다가온다. 2003년 진홍아트홀 기획초대로 열린 그의 개인전 ‘말씀과 형상’전에서 우리는 30년 동안 조각으로 표현된 그의 관심과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sup>3)</sup>

3) 오의석, *말씀과 형상(LOGOS & IMAGE)*, (서울: 진홍아트홀, 2003); 작가의 에필로그. 말씀과 형상 사이에서 조각과 함께 삼십 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철의 용접에서 흙 굽기로, 사진 플라주로, 그리고 야외조각과 스케치로……. 말씀의 선포에서 변증(辨證)으로, 실천과 참여로. 말씀의 지배(支配) 속에 든든히 서기를 바랐지만 중심을 잃고 흔들렸으며 균형을 잡지 못해 좌·우로 치달

오의석의 조각 세계는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된다.<sup>4)</sup> 재료와 양식 면에서 보면 1. 고철을 용접한 정크조각, 2. 테라코타 작업, 3. 오브제에 사진 이미지를 붙여주한 작품들, 4. 야외 조각과 연변의 스케치, 5. 최근의 환경조각 '새 순'과 '기념비적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의 내용을 갖는다. 그러나 그의 조각은 이처럼 다양한 재료와 양식의 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체현이라는 일관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철과 철제 부품의 용접 작업을 말씀의 선포와 증거로, 테라코타 작업을 말씀의 변증적 작업으로, 사진 붙여주와 야외 조각, 환경조각을 말씀의 실천과 참여 나눔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 1. 고철의 용접, 정크조각(junk sculpture)

1986년 늦은 가을, 서울의 제 3미술관에서 있었던 그의 첫 개인전에 '부활의 조형'이란 제목 아래 출품된 그의 작품들은 기계 폐품과 철 오브제를 용접으로 접합한 작품들이었다. 이 작품들은 그의 대학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후의 고철선포(junk ethos) 시대에 확립된 현대조각의 전통 안에서 그가 생각해왔던 삶의 주제들을 시대의 현실에 맞게 표현한 것이다.

첫 개인전의 작품 성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그가 늘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조형적 시도로 철재의 기계 부품을 집합적으로 조합한 십자가의 연작이 그것이고, 둘째는 자연 환경과 문명의 구조에 대한 서술로서 자연석과 자연목에 철 오브제의 집합적 매쓰(mass)나 판을 대치시켜 표현한 작품들이며, 셋째는 철대문, 창(窓), 농기구 오브제 접합과 철판 작업에 시대 상황에 대한 저항의식과 시위적 표명을 담아 표현한 작품들로서 이것은 그 당시 한국미술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민중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sup>5)</sup>

먼저, 말씀의 체현과 관련하여 그의 첫 번째 성향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

있던 흔적들입니다. 어느 한 때도 조각을 조각으로 고집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열어 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각가로 불리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떤 형상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말씀과 형상 사이에 있고 조각은 그 틈새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나의 조각은 지금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의 숲 앞에서-

- 4) 이용배, "영원의 탐구: 오의석의 조형세계" *말씀과 형상*, (서울: 진흥아트홀, 2003): 초대개인전 평문. 이 글에서 2005년 '환경조형-새 순'전을 가지기 전까지 오의석의 작업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5) 오의석, "부활의 조형 -산업오브제와 고철에 의한 조각작품 제작 연구", *산업미술* 5, (부산: 효성여자대학교산업미술연구소, 1995).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사랑하사>(그림1)라는 작품은 1978년 작으로 그의 회심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미술대전에 출품한 그의 첫 발표작이다. 작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를 조형한 작품인데, 자동차 기계부품의 집합적 조립으로 구성된 이 작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과 수난의 형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양 쪽으로 길게 뻗은 양 팔에서도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매달림이 당당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세상을 이김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1) 이처럼 사랑하사, 1978 66×16×108cm,  
철오브제 용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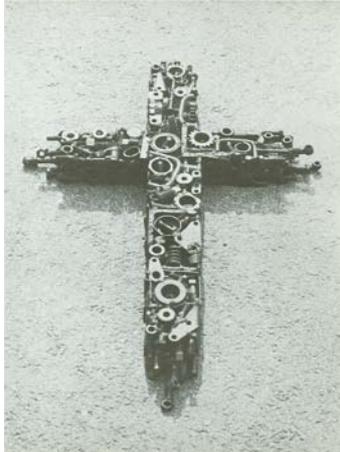


그림2) 만남, 62×90×10cm, 1983  
철오브제 용접

<만남>(그림2)이란 제목의 작품은 철 오브제의 집합적인 작품(assembly)으로 십자가의 형상이 바닥에 누워 있게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차가운 철 오브제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편안함을 선사한다. 조각가 오의석은 당시의 현실에서 ‘작품의 재료와 표현 기법에서 현대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고<sup>6)</sup>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준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현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십자가를 현대적인 재료로 조형화한 작업의 의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또 다른 모습의 형태 해석으로서 <길>이란 작품 역시 철

6) 오의석, ‘흙·사람·불’ 오의석 테라코타 작품전 도록, (서울: 토·아트스페이스, 대구: 맥향화랑, 1992).

오브제로 제작된 작품으로 이 작품은 도심의 교차로처럼 우리에게 사방으로 열린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데, 105X20X70cm의 작품 비례가 매우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작품 <만남>이 지닌 매쓰(mass)의 부분을 공간(space)으로 처리하고 공간 부분을 매스로 처리하여 대조된 양상을 보이며 만남과 함께 짝을 이룬다. 도심의 십자로가 가진 현장성의 구조를 묘사하면서도 예수의 십자가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듯하다.

## 2. 테라코타(terra-cotta), ‘흙 · 사람 · 불’

그의 작품의 두 번째 시기는 테라코타 작품이다. 이 테라코타 작품의 출현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우선 환경적으로는 직장을 따라서 서울의 위성도시 외곽, 경주 가까이에 있는 경산으로 그의 주거와 작업공간을 옮긴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작가는 어느 날 학교 박물관에서 마주친 신라 토기의 빛깔과 질감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후 경주 인근에 산재한 전통 가마들을 찾아 나섰고 그의 집 인근에 산재한 좋은 흙과 가마가 테라코타를 위한 바람직한 작업 환경이 되어 주었다. 또한 작가는 이 시기에 기독교 정신과 대립하는 현대성에 대해 깊이 회의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작업을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한 연구의 논문들을 쓰게 되는데 프란시스 웨퍼의 문화관과 현대기독교미술론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sup>7)</sup>

또한 말씀과 신학에 대한 그의 관심이 구원에서 창조로, 선교명령에서 문화명령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테라코타 작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때 오의석은 테라코타의 작업을 통해서 조각의 원형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지막 소성 과정을 위해 가마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을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테라코타 작품을 만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또 그의 창조성과 거룩성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세로 작가의 이런 정신은 1992년 ‘흙 · 사람 · 불’이란 주제로 서울과 대구에서 열린 테라코타 작품전(그림3)과 작가의 글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sup>8)</sup> 우리는 미술평론가 최태만 교수가 그의 저서 ‘한국조각의 오늘’에서 테라코타 작업에 대해 평하고 있는

7) 오의석, "성경적 조형관", *통합연구* 통권 14호(1992)과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통합연구* 통 18호(1993).

8) 오의석, "인간 창조의 원형과 그 미래에 대한 조형적 탐구", '흙 · 사람 · 불' 오의석 테라코타 작품전 도록(1992): 작가의 글.

내용들<sup>9)</sup> 속에서 오의석의 테라코타 작업이 한국 현대조각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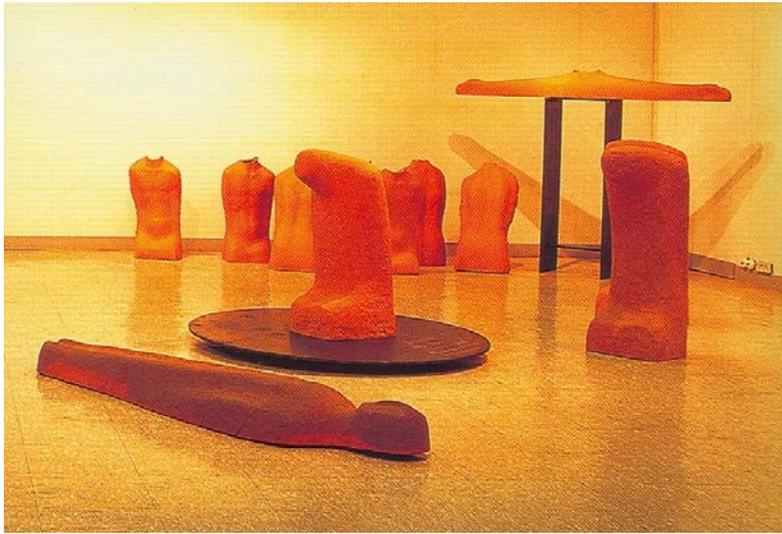


그림3) 흙·사람·불 - 군상, 테라코타 + 철 설치, 1992

이 테라코타 작품은 작품의 재료가 진흙으로 우리에게 익숙할 뿐더러 그 조각상도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하여 우리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하다. 당시 작품전 도록의 표지 작품이기도 했던 <침묵>은 고개를 90도 각도로 숙이고 무릎을 꿇은 인물이 단순하게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묵묵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우리는 이 작품의 표정을 모른다.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그저 침묵하고 있는 인물의 모습에서 우리 시대의 인물 군상 전체를 떠올려 볼 수 있다.

9) 최태만, *한국조각의 오늘*, 서울: 한국미술연합사 (1995): 333.

오의석의 <흙·사람·불>은 태초에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 형상을 흙으로 빚고 입김을 통해 생명을 부여해 주었다는 창세기를 연상하게 만든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자면 인간은 흙의 자손이다.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간다. 흙의 이러한 무한한 생명력에 비해 불은 문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중략---  
따라서 그의 작품은 대단히 사색적이고 명상적이다. 그의 작업행위는 조물주의 창조행위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작업이 종교적 숭고성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장인과 같은 진지함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가치 부재의 시대에 자신의 작업이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자문하고 있다.



그림4) 흙사람-불-평화, 테라코타, 1992



그림5) 흙사람-불-유혹, 테라코타, 1992

<목숨>, <사슬>, <여인>, <평화>, <유혹> 등의 작품들도 모두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목숨>이란 작품은 오른 손으로 검을 잡고 있는 단순화된 반신상인데, 칼 끝이 목에 다다르고 있다. <사슬>이란 작품에서는 굵은 사슬이 가슴까지 올린 왼 손을 감아 내리고 있다. 작품 <여인>은 여인이 머리에 향아리를 이고 있는 모습인데, 작가는 후에 이 작품에 대해 <기다림>이란 부제를 추가하였다. 앞선 두 작품보다 선이 굵고 여인의 몸 부분에서도 빗살 무늬 형태로 재질의 변화를 주고 있다. <평화> (그림4)라는 작품에서는 오른 손을 가슴에 얹은 소녀의 모습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 소녀의 얼굴 표정이 앞의 세 작품보다 조금 더 밝게 보여진다. <유혹>(그림5)이란 작품에서는 선악과로 상징되는 과일이 여인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고 사탄으로 상징되는 작지 않은 뱀이 가슴에 꼬리를 틀고서 여인의 목 주위에서 머리를 쳐들고 있다. 이 다섯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는 쉽게 성경 말씀의 창세기를 떠올릴 수 있다. 작가는 이 테라코타 여러 작품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신화로 취급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진리로 표현하였고 우리에게 함께 그 말씀을 나누자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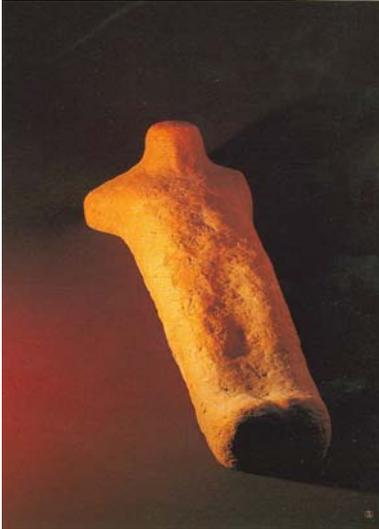


그림6) 흙·사람·불-잠, 테라코타  
50×35×140, 1992

<잠>이란 제목의 작품은 두 가지 크기로  
선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50X35X  
140cm의 크기(그림6)이고 또 다른  
하나는 155X40X15cm의 크기이다.  
전자에서 어떤 휴식이나 일상사의 잠을  
느낀다면 후자에서는 어떤 죽음에서의  
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우리에게 어떤 숙연함을 던져 주고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해준다.

오의석은 미국의 칼빈 칼리지 시절에도  
계속 테라코타 작품을 연구하여 말씀의  
변증적 작업으로서의 발표 기회를  
갖는다.<sup>10)</sup> 그 중 하나가 1994년에 제작된  
<기도>란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리 크지  
않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감동은  
특별하다. 숙인 고개와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모습, 그리고 꿇어앉은 무릎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주님께 아뢰는 기도 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모습이 더 보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제작된 많은 그의 테라코타 작품,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I,II>, <흙·사람·  
불 - 가족> 등이 더욱 편안함과 원숙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우리 마음에 구원과 회복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10) Calvin College Faculty Exhibition, Artist's Note, Isaac Oh.

These terra-cotta works are fruits of my approach in integrating a Biblical world view as a sculptor, that is, an embodiment of the Biblical narration on human beings with the material, theme, and process, of terra-cotta. Like me man is shaped from clay and the Lord's providential fires test the whole of life.

The goal of these work are twofold : to affirm my identity as being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o remind the viewers of this Biblical and creational truth using God's own clay (Isaiah 45:9, II Corinthians 4:7).

### 3. 오브제에 사진 콜라주

오의석의 세 번째 작품 시기에서는 오브제를 이용한 콜라주 작품들이 등장한다. 타자기, 주방기구, 변기, 종(鍾) 등등의 오브제 위에 지구촌의 여러 가지 사건들 - 기아와 전쟁, 폭력, 낙태, 환경오염 등 - 을 담은 사진이 콜라주된 이 작품들은 20세기의 문제들을 드러내 주었다. 이 작품들은 ‘20세기의 얼룩진 지구를 회상함’이란 제목으로 1999년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서울, 중국의 곤명, 대구, 부산에서 전시되었다.



그림7) 20세기의 얼룩진 지구를 회상함, 사진콜라주 + 테라코타 설치, 1999 180×180×30cm

<20세기의 얼룩진 지구를 회상함> (그림7)이란 작품은 테라코타와 사진이 만난 작품이다. 지구를 상징하듯 둥글게 콜라주 처리한 보도 사진들 위에 기도하는 모습의 테라코타 인물 군상들이 크고 작은 모습으로 원형을 이루면서 바깥쪽을 바라보며 놓여 있다.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지구촌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깊게 고개 숙인 작품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인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사람·사람·사람 - 낮은 곳으로> (그림8)란 작품은 철 십자가에 사진을 콜라주한 작품으로 십자가의 두 부분이 구겨지듯 굴절되어 있으며 바닥에 던져지듯 설치되어 있다. 이 작품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우리는 그가 그 당시의 미술계와 교회와 기독교미술의 현장에 대해 외치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림8) 사람·사람·사람-낮은 곳으로, 1999  
75×145×45cm, 철 + 사진 플라쥬

그 동안 나의 눈은 미술로 인해 멀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미술사의 전통을 충직하게 따르기 위해 미술 현장의 상황에 적응하기에 바빠서, 혹은 작업실의 경험과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기에 지쳐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역사와 직시해야 할 세상의 실재를 놓쳐 버린 것입니다.

미술의 문제는 미술에 의해 풀리지 않습니다. 미술의 결점은 미술로 보완될 수 없습니다. 미술의 한계를 미술로 극복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나는 십자가의 역사와 세상의 오늘에 주목합니다. 나의 눈땀을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나의 작업은 미술의 틀을 깨고, 작품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하나의 대안이자 도전적인 시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 하늘로 치솟아 오른 십자가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십자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나 장식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이나 기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살아야 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할 것을 십자가는 요구합니다. 사람, 사람, 사람을 찾아 낮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강권합니다. 11)

바닥에 내던져진 십자가와 대조적으로 <울리지 않는 일곱 개의 종> (그림9)이란 작품은 전시장의 천장에 걸려졌다. 이 작품 역시 지구촌의 사진을 종(鍾) 표면에 플라쥬한 작품으로 마땅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예술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는 이 전시회에 마지막을 사랑과 나눔의 공간, 행위예술로 마무리했다. <사랑과 나눔의 이벤트>(그림10)라는 작품은 우리 눈에 익숙한 사랑의

11) 오의석, *예수 안에서 본 미술*, (서울: 홍성사, 2006): 135.



그림9) 울리지 않는 일곱 개의 종, 1999  
200×400×800, 사진 플라쥬 설치



그림10) 사랑과 나눔의 이벤트, 1999  
53×30×23cm, 사진 플라쥬

빵을 확대하고 그 표면에 영문 잡지의 어두운 보도 사진들과 아시아 최빈국의 사진을 플라쥬한 작품으로 20세기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서로 나눌 때,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이라고 이 작품은 말하고 있다.

이 전시회들을 통해 그는 세상의 작은 변화라도 꿈꾸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좌절을 안겨 주었고 그 자신의 육체적 힘의 소진을 가져왔다. 덧붙여 그는 작품의 주제와 자신의 삶의 불일치를 확인하기에 이르렀고 안식년을 맞아 조선족과 탈북자들이 있는 연변으로 그 해답을 찾아 떠나게 된다.

#### 4. 야외 조각과 스케치, ‘연변의 흙과 바람 속에서’

조각가 오의석 작품의 네 번째 시기는 연변에서 시작되었다. 2001년 안식년을 맞아 선교지의 대학으로 떠난 그에게 조각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조형설계연구소에서 오래 전부터 계획해 온 조각공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작업을 위한 재료와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받으며 그는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하였다. 여기서 그는 작가 의식을 다시 회복하였으며 일곱 점의 대형 작품-〈평화〉, 〈유혹〉, 〈목상〉, 〈가족〉, 〈고난의 언덕〉, 〈언약의 기둥〉, 〈울림〉-을 연변 조각공원에 세웠다. 이것은 한 작가가 일년 동안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분량이었는데도 창작을 위한 적극적 후원과 미술의 건강한 구조 속에서 그는 회복된 작가 의식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sup>12)</sup>

12) 오의석, "연변의 흙과 바람 속에서", *말씀과 형상(LOGOS & IMAGE)*, (서울: 진흥아트홀, 2003): 58-59.



그림11) 광야의 울림, 630×1450×260cm, 철, 2001

<광야의 울림>(그림11)이란 작품은 철 오브제를 사용한 대형 작품으로 길다란 고깔 모양의 파이프가 양쪽에서 서로 그 머리를 맞대어 만나며 점차 크기를 달리하여 중첩 확산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빨간 원색으로 칠해진 파이프의 색깔은 우리에게 어떤 태고의 강렬한 울림을 연상케 하고 곡선의 각도가 커지는 파이프 위치에 각을 준 구조는 어떤 힘찬 용솟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조각공원의 대형작품으로 그의 연변에서의 바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연변을 광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는 그 곳에서의 삶과 작업 가운데 느꼈던 바 - '흙'(사람)과 '바람'(성령) 속에서 함께 살며 외치고 싶다 - 를 이 작품 속에 담아냈다.



그림12) 고난의 언덕, 530×170×340cm, 자연목+주철, 2001

<고난의 언덕>(그림12)은 자연목과 주철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세 개의 고목을 주철의 꺾쇠 못으로 연결시켜 고난을 표현하고 있다. 웅이 투성이의 나무가 살아온 고난의 흔적에 주철의 꺾쇠 못이 더 깊은 고난을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고목이 마치 정상 언덕에 우뚝

서서 우리에게 '나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겠는가?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듯하다.

연변의 야외조각과 스케치에서 그는 전체적으로 화려한 원색의 색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브제에 사진 콜라주를 하던 시절의 검정과

회색의 무거운 톤에서 벗어난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조각가 이용배 교수는 오의석의 연변에서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때부터 연변이 거꾸로 오의석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며 그를 피어오르게 했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이국의 황량한 벌판에 찾아들었던 그에게 실로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5월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새싹의 움을 틔우는 연변의 흙과 바람, 그곳의 사람들이 오의석과 그의 미술을 어루만졌다. ……중략 …… 또한 물이 오른 언덕에 서서 꽃이며 나무며 돌들 그리고 산과 물줄기들을 그렸다. 이러면 이럴수록 꽃 한 송이를 따듯하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없었던 그의 젊은 날이, 시대 상황에 의해 뒤틀려지고 희생되었던 미의식이 어루만져졌다. 고철에서 녹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충기 있는 금속성이 활기를 치며 돌아나는 것 같이 그가 살아나고 있었다. …… 연변, 이곳은 그가 작업과 삶의 일치라는 난제를 안고 찾아온 땅이었는데 이렇게 이 땅은 그에게 미술의 자유를, 그리고 순수함을 회복하게 했다.<sup>13)</sup>

##### 5. 환경조각, ‘울림’과 ‘새 순’의 연작

오의석은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연변의 야외조각에서 얻은 경험과 회복된 미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조각 작품에 관심을 가진다. 이제 자신의 세계에서 나와 더욱 이웃에게로 다가가는 이 작업들은 그의 다섯 번째 작품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공명의 문>, <울림 - 2004>, <하늘, 빛, 울림>, 새순의 연작(그림13), <그루터기>, <침터> <우리 강산>, <아리랑 아리랑> 등은 그가 주변의 환경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작품들이다.<sup>14)</sup>

<공명의 주 - 침터>(그림14)는 높이를 달리하는 다섯 개의 기둥이 위로 솟아오르고 있고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원호 위에는 열두 개의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하나의 벤치 조각이라 부를 수 있는 기능성의 작품이다. 오의석은 이 작품을 아파트의 주민들이 작품에 둘러 앉아 쉬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또 아이들도 이곳에서 뛰놀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이 작품에서 그는 ‘다섯 개의 기둥은 5대륙을 상징하고 열두 개의 의자는 열두 제자를 상징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작품이 사람들을 품고 쉼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sup>15)</sup> 말한다. 이런 작가의 말에서

13) 이용배, "영원예의 탐구-오의석의 조형세계", *말씀과 형상* (서울: 진흥아트홀, 2003): 7.

14) 윤영화, "새순-오의석의 환경조각", *오의석 초대전* (부산: 고신대학교 다빈갤러리, 2005): 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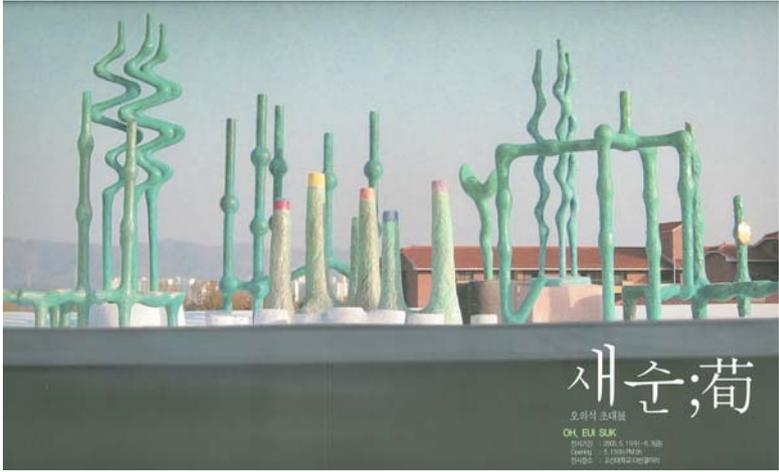


그림13) 새순 연작 ; 오의석초대전(고신대학교 다빈갤러리, 2005) 표지 작품

그의 조형사상의 성숙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그의 작품 세계를 말씀의 선포에서 말씀을 바탕으로 한 나눔의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고 이웃에게로 미술의 낮아짐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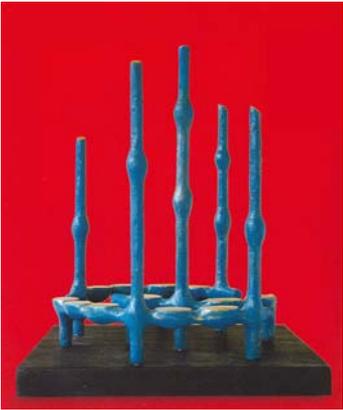


그림14) 공명의 주-쉼터, 청동 + 목재  
높이 320cm(1/10) 모형, 2004



그림15) 공명의 문, 청동+석재, 2004  
210×210×320cm(1/10)모형

15) 오의석,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서울: 흥성사, 2006): 187.

<공명의 문>(그림15)은 지구를 상징하는 원형의 좌대 위에 직립과 굴곡 확장과 축소가 반복되는 청동구조의 선 구조체 작품이다. 높이를 달리하는 기둥이 병치 연결로 이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질감의 표면처리를 거칠게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브론즈의 청색으로 표면색을 내었는데, 재질감과 색감이 조화를 이루어 선 구조체의 확장과 축소에서 어떤 솟아오르는 힘을 느낄 수 있다.

<공명의 주 - 쉼터>, <공명의 문>과 같은 거리의 조각은 미술관이나 조각 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감상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과 만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작품은 대중성과 공공성, 그리고 예술성이 함께 요구되며 훼손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웃에게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조각을 연구하고 있다.

#### IV. 맺음말

조각가 오의석은 기독교미술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작품에 강렬하게 반영시켜오고 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건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건 또 이웃과 나눔의 삶을 이야기하건 간에 그 밑에 흐르는 정신은 예수의 정신이며 그것은 곧 말씀의 체현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는 말씀을 체현함에 있어서 현대의 다양한 미술 양식과 재료를 이용함으로써 현대 기독교 미술의 장을 넓혀왔다.

본 작가론에서 오의석의 작품세계를 다섯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시기에서 그는 고철과 철 오브제의 용접을 통하여 말씀 선포와 증거, 그리고 환경과 시대 상황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현하였고, 두 번째 시기에서 그는 테라코타를 통하여 말씀의 변증, 곧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을 테라코타의 재료와 주제와 기법으로 유비시키는 작업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에서 그는 오브제에 사진 이미지들을 플라주하여 시대의 아픔을 표현하고 그 해결책으로 작은 정성이 담긴 나눔을 제시함으로써 말씀의 실천과 참여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네 번째 시기에 그는 연변의 조각 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야외 조각과 스케치로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과 함께한 열매들을 보여주었는데, 그의 나눔의 철학은 이 시기에 더욱 확장되었다. 연변에서 돌아온 이후 다섯 번째 시기에 들어서 그는 '새 순'

'울림'이란 주제로 환경조각, 광장과 거리, 주거공간에서의 조각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미술을 나누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낮아짐의 미술로 이웃과 함께 하는 미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조각가 오의석 연구에서 우리는 한 예술지상주의 청년조각가에게 찾아온 말씀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신앙을 성장시켰으며, 그의 형상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이 흔히 현대 작가의 조형적 자유와 활동을 제한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의 작품 속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조형적 사유와 실천이 말씀 안에서 가능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03년에 조각가 오의석은 자신의 위치를 '말씀과 형상 사이에서'로 정리하며 '그에게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떤 형상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면서, 30년을 함께한 조각이 지금도 물음표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것은 말씀의 체현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또 다른 그의 조각 이미지의 가능성을 말해주는데, 그의 이야기처럼 오의석은 '새 순' 연작의 실험에 머물지 않고 2006년 '기념비적 형상'이란 표제 아래서 더욱 심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2007년 봄을 맞으며 '부흥 2007'이라는 주제로 환경 조형의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sup>16)</sup> 이처럼 말씀이 주는 도전과 자극 앞에 늘 깨어있고 그것을 작품으로 연결하는 그에게, 우리는 말씀의 체현으로서 그의 다양한 조각적 이미지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통합될 것인지 기대를 갖게 된다.

---

16) 오의석, 조각전 '부흥 2007': 작가의 노트.

"이 땅의 황무(荒蕪)함을 보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의 부흥을 갈망하며 만들기 시작한 촛대, 메노라의 형상 위에, 용접하는 손과 가슴에 불이 붙었다. 이제 부흥을 위해 살고 싶다. 먼저 내가 부흥이고 싶다. 은혜의 강물이고 싶다. 성령의 바람, 불이고 싶다. 좁고 긴 겨울의 작업실에서 철에 핀 녹을 벗겨 자르고, 녹이고, 붙여 세우고, 표면에 색을 올린 촛대의 형상들은 한 조각가의 꿈과 믿음이 빛은 부흥의 노래이며 부흥의 기도이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소망을 담은 철제의 형상들로 열한 번째 개인전을 가진다. 말씀의 촛대에 불을 밝히며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열방(列邦)을 향해 부흥의 노래를 부른다. - 하양(河陽)의 작업실에서 봄을 기다리며-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김병중 외. 1996. *기독교와 미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오의석. 2006. *예수 안에서 본 미술*. 서울: 홍성사.
- 오의석. 2005. *새순-오의석 초대전*. 부산: 고신대학교 다빈갤러리.
- 오의석. 2003. *말씀과 형상(LOGOS & IMAGE)*. 서울 :진흥아트홀.
- 오의석. 1995. 부활의 조형-산업오브제와 고철에 의한 조각작품 제작 연구 *산업미술*, no.5. 부산: 효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 오의석. 1993.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통합연구* 통권 18호. 대구: CUP.
- 오의석. 1992. 성경적 조형관. *통합연구* 통권 14호. 대구: 통합연구학회.
- 오의석. 1992. '흙·사람·불' 테라코타 작품전 도록. 서울: 토·아트스페이스 / 대구:백향 화랑.
- 전광식 외 1997. 믿음과 배움으로 도전하는 삶. 서울: CUP
- 최태만. 1995. *한국조각의 오늘*. 서울: 한국미술연감사.
- 프란시스 A. 웨퍼, 김진선 옮김. 2002. *예술과 성경*. 서울: IVP.
- Rookmaaker H. R., 김현수 옮김. 2002. *예술과 그리스도인*. 서울: IVP.
- Rookmaaker, H. R., 김유리 옮김. 1993.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서울: IVP.

---

**이은주** 선생은 경희대 국어국문과 졸업, 온누리TV 어린이 Q.T. 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캐나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카운셀링을 공부하고 있다.